# 나주배 출하조절 가격폭락 막아라

## 풍작·태풍피해 없어 과잉생산 우려

## 소과 저장… 추석 이후로 출하 늦춰야

올해 일조량이 풍부해져 나주 배의 당도가 예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가격은 저렴해 추석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태풍피해를 입지 않는 등 풍작에 따른 과잉생산이 예상되면서 지난해와 같이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어 출하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나주배 원예농협과 재배농가 등에 따르면 최근 출하되고 있는 신고배의 경우 수확기를 앞둔 지난 8월 말부터 일조량이 풍부해 대부분이 당도가 12브릭스(Brix=당도단위)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출하된 상품의 산지가격도 15㎏ 기준으로 2만8천~3만2천원대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저렴해 소비자들의 추석 선물용으로 선호도가 높아 대량소비가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대풍으로 인해 생산비마저 건질 수 없을 만큼 가격이 폭락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올해에는 출하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유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주배농협 관계자는 "현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출하가 필요하다"며 "추석에는 대과 위주로 출하하고, 소과는 저장한 뒤 출하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풍작에 따른 과잉생산과 출하시기가 추석명절에 집중되는 바람에 15㎏당 1박스 산지가격이 1만원 이하로까지 급락, 한때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다.

이상계 나주배조합장은 "지난해는 추석이 빨라 조기출하에 따른 당도저하, 성장촉진제 사용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급감했다"면서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시장상황이나 작황이 크게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출하시기 조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나주 배의 작황은 일부 우박피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예년 수준인 7만t에 달해 전국 생산량의 18%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고추를 이렇게 씻는구나"** 강진군이 깨끗한 청결고추 생산을 위해 옛날고추작목반 등 고추재배농가에 고추세척기 20대를 지원, 농가일손 절감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추 세척기는 시간당 1t 이상의 고추를 씻을 수 있어 직접 물로 씻고 닦았을 때에 비해 일손을 크게 덜 수 있다. 〈강진군 제공〉

## 신안 연안어선 감척사업 참여조건 대폭완화 시행

신안군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연근해 어선세력을 감축,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연안어업구조조정(감척)사업비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 초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군은 사업참여를 희망하거나 관심있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14~18일 권역별로 나눠 사업 참가요령에 대한 현지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9월 안에 사업공고를 한 후 연안통발·연안자망·연안복합어업 등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우선 감척하기로 했다.

어업인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선박소유기간을 최근 2년→1년간으로, 조업실적을 최근 1년간 60일 이상→2년간 90일 이상으로, 선령은 6년 이상→3년 이상으로, 감척 유경험자 참여제한은 10년→5년간으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한편 신안군은 1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5년부터 16척을 시작으로 2006년 49척, 2007년 86척, 2008년 179척 등 모두 330척을 줄였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농협 금융텔러 채용

## 광주20명·전남27명

농협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일 각 27명, 20명 등 모두 47명의 금융텔러를 채용했다.

광주·전남 본부는 지난 8월3일부터 5일간 인터넷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합격자는 2주간 금융업무와 영업점 현장 OJT(on-the-job training) 등 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28일 각 영업점에 배치된다.

또 농협은 올해 하반기 대졸 신규직원의 경우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전국적으로 2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어서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전남본부는 이미 1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1천800여명 규모의 대학생 농협체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 연초부터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공연·전시·스포츠가 한자리에

## 화순 랜드마크 '하니움' 18일 개관… 미술인 초대전·대학배구 등 줄이어

화순군의 랜드마크인 '하니움(Hanium) 문화·스포츠센터'〈사진〉가 문을 연다.

화순군은 오는 18일 최인기 국회의원과 박준영 전남지사, 전완준 화순군수를 비롯한 내외귀빈과 3천여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식을 갖는다.

조화(Harmony)와 중심(Centrum)의 합성어인 '하니움'은 377억원의 예산을 들여 5만1천548㎡ 부지에 연건축면적 1만6천905㎡로, 지하 3층·지상 2층 규모다.

지상 1, 2층은 2천730석 규모를 갖춘 체육관으로 배구·농구·배드민턴 등 모든 실내경기를 할 수 있으며 귀빈 대기실(목사고을)도 갖춰져 있다.

지하층은 725석 규모의 대강당(적벽실)과 168석 규모의 소공연장(만연홀), 전시실(춘곡갤러리), 웨이트 트레이닝실(테라피센터)로 활용된다.

또 하니움 입구에는 화순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대한 붓 조형물이, 대강당 로비 벽면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글인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가 서각 작품으로 각각 설치됐으며 하니움 주변에는 배드민턴 라켓 모형의 호수가 조성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는 올해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대회와 전남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화순코리아 챌린지 국제 배드민턴대회,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등 8개 대회가 예정돼 있어 전국 실내경기의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하니움은 군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가져오고, 나아가 다양한 문화·스포츠 행사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 오후 6시30분 화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서 송대관·남진·설운도·박현민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한 가운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식 전야제가 열린다.

또 개관식 당일인 18일 오후 4시와 7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북한 배우출신 김혜영과 이대로·최주봉·강태기 등 연극배우들이 출연하는 악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가 공연된다.

이밖에 18일부터 한달간 하니움 내 춘곡갤러리에서 화순 미술인 42명이 참여하는 초대전이 열린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나주 통합시장 이설사업 '난항'

## 토지 매입 지연… 6월부터 공사 중단

나주시가 추진하는 통합시장 이설사업이 토지매입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성북동 일대 5일시장과 금계동 상설시장을 나주배조합 공판장 인근인 삼도동 일대(2만4천여㎡)로 옮기는 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0억원을 들여 신설하는 통합시장은 현대식 공설 마트와 5일시장 기능을 겸비한 공간으로 50여개의 깔끔한 점포에 품바와 풍물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무대시설이 들어선다. 기존 금계시장에 식당이 밀집돼 있던 지역의 대표 음식 '곰탕'과 '한우'를 특화한 '나주곰탕 식당가'도 조성된다.

하지만, 시장 이설작업은 애초 올해 초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지난 5월에야 착공된 데다 일부 토지 소유주의 반발로 그나마 6월부터는 공사도 중단된 상태다.

나주시는 보상가에 대한 입장차가 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상태이며 조만간 재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사를 강행할 계획이다. 새 부지는 광주~목포 국도 1호선에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과일 도·소매 공판장과 맞닿아 있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5일시장은 시설이 낡고 도로변에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래전부터 이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금계시장도 나주목(牧) 복원사업으로 부지가 편입돼 이전이 불가피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 목포교육청 '찾아가는 연수' 진행

## 전 교직원 상대 '교육복지투자사업' 이해·발전방향 모색

목포교육청(교육장 최경수)이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관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6개학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광주교육대 교육학과 이정선 교수,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진혜경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목포 북교초, 목포 중앙초, 목포 유달초, 목포 남초, 목포 서산초, 목포여중 전 교직원 1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연수는 교육복지투자사업 학교 교직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교육복지사업 추진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목포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관계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상호 협력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의 소외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켜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